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 나 리†

이 동 귀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한국판(K-ICQ)을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번역, 역번역 번안과정을 거친 도구를 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1문항으로 이루어진 5 요인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3개의 요인(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갈등 관리)은 미국에서 발견된 요인들과 유사하였고 나머지 2개의 요인(타인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자기개방)은 한국의 대인관계 문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인관계 문제, 외로움, 자존감,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해 K-ICQ의 수렴, 공존,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2주 간격을 두고 확인한 K-IC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K-ICQ 점수가 시간에 걸쳐 안정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문화의 고유한 대인관계 유능성 영역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다듬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추가적인 시사점과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인관계 유능성, ICQ, K-ICQ, 한국 문화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나리의 석사논문(2009년 7월, 지도교수 이동귀)에 바탕을 둔 것임.

† 교신저자 : 한나리, 연세대학교,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유억겸 기념관 201호
Tel : 02-2123-4889, E-mail : nareehan@empal.com

대인관계 유능성은 Thorndike(1920)에 의해 사회지능(social intelligence)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Thorndike는 사회지능을 일반적인 지능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자신과 타인의 내적인 동기, 상태,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 Burns & Farina, 1984), 의사소통 유능성(communicative competence; Allen & Brown, 1976; Cooley & Roach, 1984; Larson, Backlund, Redmond, & Barbour, 1978; Rubin, 1982), 혹은 관계 유능성(relational competence; Hansson, Jones, & Carperter, 1984) 등으로 명명되어 왔다. Spitzberg와 Cupach(1989)는 이러한 용어 중 가장 일반적인 용어인 대인관계 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개념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Spitzberg와 Cupach(1989)에 의하면 대인관계 유능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적절성(appropriateness)이다. 먼저 효과성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상대방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목표 및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얻고 이를 통해 만족감, 비용 대비 최대의 보상,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를 얻어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적절성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 규칙, 기대 등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재치 있고 예의바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Spitzberg와 Cupach(1989)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자기 주장성(Alberti & Emmons, 1974; Lorr & More, 1980), 공감능력(Hogan, 1969; Mehrabian & Epstein,

1972), 수줍음과 사교성(Check & Buss, 1981), 정서표현이나 조절능력(Riggio, 1986)과 같은 세부적인 행동기술(behavioral skills)은 물론이고, 대인관계와 관련된 지식, 동기, 맥락 및 결과물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 유능성의 부재와 불안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Conger, Wallander, Ward, & Farrell, 1980). 즉,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며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 다시 대인관계 유능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대인관계 유능성이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 병원 치료 기간이 단축되며(Zigler & Phillips, 1960, 1961, 1962), 대인관계 유능성이 부족한 경우 우울한 기분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sman, Paykel, Siegel, & Klerman, 1971; Wierzbicki, 1984). 아울러 대인관계 유능성은 기능적이고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Spitzberg & Cupach, 1989) 대인관계 유능성이 떨어질수록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Spitzberg & Canary, 1985; Zakahi & Duran, 1982). 요컨대 대인관계 유능성은 개인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따라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상담 및 정신건강분야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의 측면에서 내담자가 보이는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는 도구 중 널리 사용되는 것은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및 Reis(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이다. ICQ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크게 5가지 영

역, (1)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개시, (2) 자신의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3)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 (4) 타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 (5) 갈등 관리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ICQ는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77에서 .87로 양호하고 4주 간격을 두고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도 각 영역별로 .69에서 .89로 나타난 비교적 신뢰로운 도구이다. ICQ가 개발된 이래로 발달과 적응 심리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 도구를 활용하여 대인관계 유능성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혀 왔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예측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의 예로, Koesten(2004)은 의사소통이 활발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동성친구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높은 유능성이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Bartle-Haring과 Sabatelli(1997)는 부모에 대해 더 많은 정서적 반응을 할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Armistead, Forehand, Beach 및 Brody(1995)는 잦은 갈등 및 부모의 이혼과 같은 가정 내의 문제는 낮은 자존감을 예언하고, 낮은 자존감은 다시 대인관계 유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 수준에 따라 다른 변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어 Miller와 de Winstanley(2002)는 ICQ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관리기술이 뛰어나고 대화를 나눈 후 상대방이 했던 얘기를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의존성이 높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을수록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Nelson, Hammen, Daley, Burge, & Davila, 2001)와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래로부터 공격을 받기 쉽다는 연구 결과(Gasteiger-Kicpera & Klicpera,

1999)도 보고되었다.

서구에서 ICQ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이 도구가 서구문화와는 매우 다른 한국문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실제로 ICQ를 개발한 Buhrmester와 동료들은 ICQ를 구성하는 5가지 요인들이 서구와 다른 문화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특정 문화에서 중요한 대인관계 유능성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문화와는 달리 집합주의의 특징을 띠는 한국문화에서 ICQ가 어떤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는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이다(Hofstede, 1991; Triandis, 1989).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사회의 구성단위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ICQ 개발의 바탕이 된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의 구성단위가 독립적인 개인이 된다. 따라서 각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조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얼마나 독립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며 각 구성원의 개성과 권리를 존중한다(Miller & Bersoff, 1992).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는 '나'의식과 자율성, 개인의 주도성, 개인적 성취, 사생활에 대한 권리, 쾌락추구, 경제적 안정, 보편주의 등이 된다. 이에 반해 한국과 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의 구성단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이며(장성숙, 2004), 한 개인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의식을 강조하고 집단 정체성, 정서적 의존, 집단의 유대를 중

시하며, 권리보다는 의무, 개성의 발휘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Kim, Triandis, Kagitcibasi, Choi, & Yoon, 1994).

대인관계는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 모두에서 공히 중요하지만, 대인관계 유능성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서구 문화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과 동아시아 유학사상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비교한 조근호(2006, p.501)에 의하면, 서구에서의 이상적 인간상은 “독특하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자기 개성을 실현하는 일이 핵심 목표로 전제”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적 관계체인 개인의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책임의 달성을 그 핵심 목표로 전제”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요컨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대인관계를 잘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특성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타인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과 관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완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문화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규범 및 관계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도 ICQ의 5요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의 몇몇 연구자들(김창대, 김수임, 2001; 김화란, 2001; 배정우, 2003; 정재윤, 2001; 홍기목, 2004)이 ICQ를 대인관계 연구에 활용하여 대인관계 유능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거나(배정우, 2003), 어머니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자녀의 또래관계 양상의 관계를 살펴보고(정재윤, 2001), 청소년의 대인관계 유능성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조사하였다(홍기목, 2004). 그렇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ICQ를 한국어로 단순 변안하여 사용하거나, 척도의 일부

만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신뢰롭지 못한 연구결과와 양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한국판 ICQ에 대한 체계적이고 엄정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ICQ를 번역, 역번역 한 후 동일성 평정을 하여 엄정하게 척도를 변안하고 한국어 번역판 ICQ(K-ICQ)를 한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평행분석을 포함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어떤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를 밝히고, 다른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렴, 공존,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수준에 따라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교류하는 데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걱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 척도(IIP-SC; Soldz, Budman, Demby, & Merry, 1995)를 수렴타당도 확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공존타당도는 자존감과 외로움 척도와와의 상관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존감과 대인관계의 인과관계는 양방향 모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되었으며(Battistich, Solomon, & Delucchi, 1993; Leary & Baumeister, 2000; Leary & Downs, 1995; Leary, Tambor, Terdal, & Downs, 1995), 외로움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될 때 발생하는 정서이다(Ernst & Cacioppo, 1998). 변별 타당도는 Paulhus(1994)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IDR-IM)와의 상관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실제 지각하는 자신의 모습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남에게 보이

려는 경향을 측정하므로(Keogh & Herdenfeldt, 2002; Smith & Christensen, 1995)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에서 응답자의 반응 편향이나 왜곡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Dickinson & Tokar, 2004; Potosky & Bobko, 1997; Scandell & Wlazelek, 2002). 마지막으로 2주 간격을 두고 K-ICQ를 두 번 측정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연구진행에 관한 기관 연구심의위원회¹⁾의 허가를 받은 후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82명(여자 99명, 남자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8세에서 30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20.6세($SD = 2.12$)였다. 참가자들의 학년은 1학년 68명(37.4%), 2학년 37명(20.3%), 3학년 42명(23.1%), 4학년 34명(18.7%)로 분포되어 있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측정은 충청도 소재 한 대학교 학생 30명(남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1.3세($SD = 1.49$)였으며 최소 20세, 최고 25세 사이에 분포하였다.

측정도구

- 1) 기관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가 진행된 학교의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를 의미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헬싱키 선언의 권장에 따라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실시되도록 전문적인 검토, 심의를 하기 위해” 운영.

대인관계 유능성 측정 도구

한국 문화에서의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 요인을 밝히기 위해 Buhrmester 등(1988)의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사용하였다. ICQ는 5가지 대인관계 영역, (1) 다른 사람과 관계 및 상호 작용을 개시하는 것, (2) 자신의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는 것, (3)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것, (4)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 (5) 갈등을 관리하는 것 각각을 측정하는 문항 8개씩으로 구성되어 총 40문항이다. 5점 리커트 형식으로 1점은 “나는 이것을 잘못 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이 불편하고 다룰 수 없다고 느낀다, 나는 가능하면 이것을 피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고, 5점은 “나는 이것을 매우 잘 한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편안하게 잘 다룰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이 제시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응답하게 된다. 기존 연구(Buhrmester 등, 1988)에서 ICQ의 문항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에서 .87로 보고되고 있으며, 4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각 영역별로 .69에서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 역번역, 동일성 평정 과정을 거친 척도 번안 과정에 따라 연구자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연구절차 참조), 40문항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척도

한국판 ICQ의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ee(2003)에 의해 번안, 타당화된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 Short Circumplex Form(IIP-SC)*을 사용하였다. IIP-SC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 형식이다. 1은 전혀 아님, 5는 매우를 의미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IIP-SC는 각 개인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의 정도를 측정하며, 8개의 하위척도(거만, 악의, 냉정함, 회피, 비주장, 착취, 과잉보호, 참견)로 구성되어 있다.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및 Vilasenor의 연구(1988)에서 α 계수는 .88에서 .89로 보고되었으며 3달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도구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2003)에 의해 변안, 타당화된 Paulhus(1994)의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Impression Management (BIDR-IM)*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참가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7점 리커트 척도(1= 사실이 아니다, 7= 매우 사실이다) 상에서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응답하게 된다. 6점과 7점을 선택한 경우 1점으로, 나머지는 0점으로 하여 총점을 계산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경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Paulhus(1994)에 의해 보고된 BIDR-IM의 내적합치도는 .75 ~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5였다.

자존감 측정도구

전병재(1974)에 의해 변안, 타당화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Inventory: RSE*)를 사용하여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RSE는 리커트식 4점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4= 확실히 그렇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하게 된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고(Fleming & Courtney, 1984),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로 보고되었다(Silber & Tippett, 1965). 본 연구에서는 RSE를 K-ICQ의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측정도구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교현, 김지환(1989)이 변안한 Russell, Peplau 및 Cutrona(1980)의 UCLA 외로움(Loneliness)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의 반응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 10개의 문항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본 10개의 문항 등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이 응답을 기초로 긍정적인 방향의 문항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경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Russell 등(1980)에 의해 .84로, 김교현 등(1989)에 의해 .84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었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제 1 저자가 ICQ의 원저자인 Buhrmester의 허락을 받아 영어에서 한국어로 변안한 ICQ 문항을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능통자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역 번역(back translation)을 하고, 원래의 영어 문항과 역번역된 영어 문항에 대해 두 명의 영어 원어민이 동일성 평정을 실시하였다. 원래 문항과 역번역된 문항이 얼마나 동일한지를 7점 척도(1 = 동일하지 않다, 7 = 동일하다)로 평정하게 한 후, 두 명의 평균점수가 4점 이하인 문항을 다시 검토하여 번안문을 수정,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번역 문항을 완성하였다.

기관 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은 후, 2009년 4월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 참가신청을 하였고 신청한 시간에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 응답 방법, 설문참가자의 권리(자발적 참여, 중도 포기 가능, 비밀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은 지필 검사로, 참가자 본인의 생각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설문이 완료된 후, 각 참가자들은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제출하고,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사후 설명서를 배부하였다.

자료 분석

K-ICQ의 하위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SPSS 15.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프로맥스 회전(promax rotation)을 이용한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eigenvalue), 스크리도표, 요인 부하량 및 설명량 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탐색적 요인분석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을 보완하고, 요인의 수를 엄격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평행분석(parallel analysis)을 함께 실시하였다(Zwick & Velicer, 1982). 평

행분석은 연구에서 얻어진 표본의 고유값과 무선적으로 생성된 표본의 고유값을 선형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인데(O'Connor, 2000), 고유값이 1보다 큰 요인을 선택하거나(Kaiser, 1960) 스크리 도표로만 요인의 수를 결정할 때 과대 추정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어 정확하게 요인의 수를 지정하는데 도움을 준다(Velicer, Eaton, & Fava, 2000; Zwick & Velicer, 1986). Pett, Lackey와 Sullivan(2003)이 제안한 기준에 따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40 이하, 교차부하량(cross loading)이 .30 이상인 문항들은 제외하여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간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또한 K-ICQ의 수렴 · 변별 · 공존 타당도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K-ICQ 총점 및 하위요인들과 다른 기준 변인들(대인관계 문제, 사회적 바람직성, 자존감, 외로움)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검사 재검사 신뢰도 분석은 SPSS 15.0을 활용하여 2주 간격의 사전 K-ICQ 점수와 사후 K-ICQ 점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요인구조

K-ICQ 4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 Measure)는 .82,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p < .001$ 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achnick & Fidell, 2001). 스크리 도표에서 5번째 요인 이후부터 편평한 기울기를 보

표 1. 평행분석 결과

요인	실제 고유값	평균 고유값	95 th 백분위 고유값
1	8.697	2.024	2.130
2	3.703	1.901	1.994
3	2.954	1.807	1.887
4	2.382	1.726	1.791
5	1.817	1.648	1.712
6	1.403	1.583	1.645
7	1.271	1.526	1.577
8	1.199	1.477	1.532
9	1.081	1.418	1.463
10	1.034	1.364	1.415

주. 50회의 실제, 평균, 95th 백분위 고유값 (Eigenvalue) 중 10번째까지의 고유값을 제시함.

였으며, 평행분석 결과(표 1)도 5요인 이후에서 무선적 자료의 고유치가 실제 고유치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5요인의 존재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요인별 문항 및 요인의 특성

K-ICQ의 요인의 수를 5개로 확정된 후, 40 문항 중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40 이하, 교차부하량(cross loading)이 .30 이상인 문항들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전체 변량의 42.0%를 설명하는 5요인의 31문항이 확정되었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요인 1은 영문판 ICQ의 ‘관계 형성 및 개시’ 요인의 8문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므로 한국판에서도 동일한 요인명을 유지하였다. 관계 형성 및 개시 요인의 고유치는 8.70으로 전체 변량의 12.7%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요

인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은 원 척도 요인의 8문항 중 7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고유치는 3.70이었고 설명량은 9.0%이었다. ‘관계 형성 및 개시’ 요인 8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0,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요인 7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요인 3은 ‘정서적 지지’의 5문항과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의 한 문항, ‘갈등 관리’의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alpha = .78$). 7문항은 모두 타인에게 도움이나 관심을 주는 내용이었으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로 명명하였다. 타인에 대한 배려 요인의 고유치는 2.95로 전체 변량의 8.6%를 설명하였다. 이 요인은 한국 대학 생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요인으로 타인이 필요로 할 때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신경쓰는지를 표현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4는 ‘갈등 관리’의 8문항 중 6문항이 포함되었으며($\alpha = .74$), 고유치는 2.38, 설명량은 7.0%이었다. 마지막 요인 5는 3문항으로, 모두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 요인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다. 이 요인은 원 척도에서 제외된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의 5개 문항들이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에게 개인적인 것을 공개하거나 친구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내용임에 비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내면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자기개방’이라고 명명하였다. 적절한 자기개방 요인의 고유치는 1.82로 전체 변량의 4.6%를 설명하였고, 내적합치도는 .63이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외된 문항은 총 9

표 2. 대인관계 유능성 문항과 요인부하량, 공통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패턴 계수					b^2	평균	표준 편차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1 : 관계 형성 및 개시 (8문항; $\alpha = .90$)								
당신이 알고 싶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	.84	-.02	.11	-.02	-.06	.72	3.36	1.14
새로운 사람에게 함께 모이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예를 들면, 사귀자고)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것	.81	-.10	.04	-.08	.16	.72	3.19	1.12
사람들을 처음 알게 될 때, 함께 하면 흥미롭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	.78	-.02	.11	-.09	-.08	.60	3.23	1.22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당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파티나 모임에 가는 것	.75	-.03	-.01	-.01	-.07	.52	2.90	1.21
알고 싶은 사람(혹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것	.69	.11	-.07	.13	.02	.56	2.96	1.10
흥미를 느끼거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할 것을 찾거나 제안하는 것	.68	.06	-.03	-.01	.10	.53	3.38	1.05
새로운 데이트상대나 새로 알게 된 사람에게 만나서 뭔가를 할 시간을 정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	.63	.15	-.07	-.10	.03	.45	3.29	1.21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혹은 데이트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	.61	.08	.15	.11	-.24	.45	3.45	1.03
요인 2: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alpha = .83$)								
친구에게 그(녀)가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01	.84	.03	-.05	-.08	.67	2.70	1.07
데이트상대나 지인에게 그(녀)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	.20	.67	-.08	.04	.00	.56	2.58	1.03
친구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을 거절하는 것	-.11	.64	-.03	.08	.18	.46	3.09	1.09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친구에게 맞서는 것	-.07	.62	.12	-.20	-.07	.41	2.92	1.02
데이트상대나 지인이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도록 요청했을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09	.53	-.21	.19	.07	.35	2.81	1.15
친구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12	.52	.16	.01	-.08	.37	3.32	0.97
친구에게 그(녀)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	.06	.51	.05	-.08	.14	.37	2.51	1.16

표 2. 대인관계 유능성 문항과 요인부하량, 공통분, 평균 및 표준편차 (계속)

31문항 ($\alpha = .88$)	패턴 계수					b^2	평균	표준 편차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3: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alpha = .78$)								
친한 친구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녀)를 높게 평가하고 신경 쓰는지 얘기하는 것	.02	.08	.69	-.06	-.16	.43	3.65	0.93
친한 친구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충고를 할 수 있는 것	-.05	.05	.65	.14	-.08	.45	3.69	0.87
친한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녀)를 격려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04	-.01	.60	-.06	-.16	.31	3.98	0.71
친한 친구가 가족이나 룸메이트와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는 것	.09	-.02	.54	.01	.06	.37	3.38	0.83
친구의 문제가 당신에게 흥미가 없을 지라도 진실된 공감적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	.15	-.05	.53	.18	-.13	.38	3.65	0.92
친한 친구가 중요한 삶의 결정(예를 들어, 진로 결정)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처리하도록 돕는 것	.18	-.14	.50	-.09	.23	.44	3.79	0.92
전체를 비난("너는 언제나 그래")하지 않고 친구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03	.11	.40	.22	-.03	.27	3.67	0.86
요인 4: 갈등 관리 (6문항; $\alpha = .74$)								
친한 친구와 싸울 때 화가 난 감정을 접을 수 있는 것	.04	-.01	-.11	.81	.01	.63	3.32	1.06
큰 싸움이 될 수 있는 의견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는 말을 삼가는 것	-.10	-.13	-.02	.58	-.04	.35	3.74	1.09
친한 친구와 의견 불일치가 생겨 큰 싸움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10	.11	.03	.56	.10	.34	3.57	0.97
해로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친한 친구에게 (그것이 정당화 되더라도) 폭발하지 않는 것	.09	-.02	-.05	.50	-.07	.26	3.65	1.04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당신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녀)가 타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05	.13	.11	.45	-.01	.25	3.54	0.91
싸우면서 친구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관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	-.07	.03	.17	.45	.05	.27	3.42	0.84
요인 5: 적절한 자기개방 (3문항; $\alpha = .63$)								
가까운 친구에게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자신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20	.18	.14	-.07	.64	.52	2.90	1.24
새로운 친구나 데이트 상대를 믿고 그가 당신의 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보도록 하는 것	.01	.06	-.26	.16	.63	.39	2.43	1.12
새로운 친구에게 "진짜 당신"을 알도록 하는 것	.28	.06	.10	-.03	.41	.42	2.88	1.03

주. $N = 182$. $b^2 =$ 공통분(communality) 지수. 요인부하량은 프로맥스 회전을 사용한 주축요인 추출의 패턴행렬을 통해 산출됨.

표 3. 요인분석 결과 제외된 문항과 요인부하량, 공통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패턴 계수					b^2	평균	표준 편차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데이트 상대나 지인에게 그(녀)가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18	.37	-.19	.15			
데이트 상대나 지인과의 대화를 피상적인 얘기에 정말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로 옮기는 방법을 아는 것	.39	.14	.24	.06	.12	.59	3.06	1.01
친한 친구에게 내밀히 당신을 긴장하거나 무섭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	-.19	.35	.27	-.09	.27	.48	3.21	0.99
이제 막 알게 된 사람과 얘기하면서 당신에 관한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	.41	-.16	-.22	-.08	.50	.47	2.71	1.14
당신의 방어적인 “겉껍질”을 내려놓고 친한 친구를 믿는 것	-.02	.04	.24	.07	.32	.41	3.29	1.21
친한 친구가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도록 돕는 것	-.08	-.08	.57	-.06	.33	.56	3.65	0.76
친구가 그(녀)가 갖고 있는 외부 문제에 대해 울분을 토하도록 참을성 있고 섬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것	.05	-.27	.21	.40	.15	.50	4.07	0.84
속상한 친구를 위해 훌륭하고 민감한 청자(聽者)가 되는 것	.01	-.09	.37	.37	.06	.52	4.1	0.69
친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확실하게 그(녀)의 불만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는 것	-.01	.11	.02	.20	.10	.24	2.69	0.93

주. $N = 182$. $b^2 =$ 공통분(communality) 지수. 요인부하량은 프로맥스 회전을 사용한 주축요인 추출의 패턴행렬을 통해 산출됨.

문항이었다(표 3). 주로 방어를 허물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알게 되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시의적절하지 않게 자신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항들이 제외되었다. 아울러 타인의 내면에 깊이 관여하는 문항들도 제외되었다. 예를 들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강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거나 문제의 핵심을 보도록 도와주는 내용들이었다.

요인 간 상관

K-ICQ 5개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았다(표 4). 그 결과 ‘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편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적절한 개방’ 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유능성을 4개 요인 각각에 대해 비슷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 관리’요인은 ‘타인에 대한 배려’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r

표 4. K-ICQ 요인과 척도들의 상관

	개시	주장	배려	갈등	개방	K-ICQ	대인 관계문제	사회적 바람직성	자존감	외로움
개시	-									
주장	.37*	-								
배려	.39*	.24*	-							
갈등	.12	.04	.29*	-						
개방	.33*	.40*	.27*	.08	-					
K-ICQ	.80*	.67*	.66*	.43*	.56*	-				
대인관계문제	-.35*	-.40*	-.28*	-.12	-.10	-.43*	-			
사회적바람직성	-.03	-.10	.08	.19	.09	.04	-.13	-		
자존감	.46*	.16	.26*	.10	.15	.40*	-.44*	.02	-	
외로움	-.54*	-.28*	-.51*	-.21*	-.37*	-.61*	.46*	-.11	-.58*	-

주. * $p < .01$. ‘개시’는 관계 형성 및 개시 요인, ‘주장’은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요인, ‘배려’는 타인에 대한 배려 요인, ‘갈등’은 갈등 관리 요인, ‘개방’은 적절한 자기개방 요인, K-ICQ는 K-ICQ총점을 나타냄.

= .29, $p < .01$)을 보이고 다른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갈등관리’ 요인의 문항들이 대부분 감정을 억제하고 표현을 자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관계 형성 및 개시’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과 반대적인 속성을 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타당도 분석

K-ICQ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SPSS 15.0을 이용하여 관련된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상관분석을 실시할 때 1종 오류(영가설이 참인데 그 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p < .05$ 보다 보수적인 유의수준 $p < .01$ 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

였다.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대인관계문제(IIP-SC)척도는 K-ICQ 총점과 ‘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편함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도움을 제공하고 자기표현을 잘 할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경험한다는 의미로 K-ICQ의 수렴타당도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BIDR-IM) 척도는 K-ICQ 총점 및 하위 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변별타당도의 증거를 제공한다.

공존타당도 측정을 위해 사용한 자존감(RSE) 척도와 UCLA 외로움 척도는 K-ICQ 총점과 하위요인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외로움은 모든 하위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각 요인에

대해 유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로움은 덜 경험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K-ICQ의 공존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

SPSS 15.0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처음 실시한 K-ICQ 전체 점수와 2주 후 실시한 K-ICQ 전체 점수 간 상관계수는 .84로 나타났다($p < .01$; 표 5). 하위 요인들에 대한 상관은 관계 형성 및 개시, $r = .80$; 권리나 불쾌함 주장, $r = .60$; 타인에 대한 배려, $r = .75$; 갈등 관리, $r = .79$; 적절한 개방, $r = .53$ 이었다($ps < .01$). 전체 총점 및 하위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K-ICQ의 점수가 시간의 간격이 있는 후 측정해도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 검사 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상관계수(r)
K-ICQ 전체 점수	.84
관계 형성 및 개시	.80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60
타인에 대한 배려	.75
갈등관리	.79
적절한 자기개방	.53

주. $ps < .01$.

논 의

개인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아간다(Sullivan, 1953). 이렇게 대인관계가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안

녕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대인관계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 Buhrmester et al., 1988)에 대한 엄정한 타당화 작업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한국판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엄정한 번역, 역번역 변안 과정을 거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대학생 182명에게 실시하고, 평행분석을 포함한 엄정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5개의 하위영역(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갈등 관리, 타인에 대한 배려, 적절한 자기개방)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31문항의 도구를 다듬었다. 관련된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K-ICQ의 공존, 수렴, 변별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2주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결과는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한국 대학생의 5개 대인관계 유능성 중 가장 특징적인 영역은 ‘타인에 대한 배려’였다. 이 영역은 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한 원 ICQ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면서 평균값도 가장 높았다. 문항들의 내용은 친구가 요청할 때 충고, 격려, 관심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 친구에게 자신이 친구를 높게 평가하고 신경쓰고 있음을 표현하고,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친구라는 사람 전체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더 좋은 기분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유쾌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인 사람을 대인관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타인을 잘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타적인 사람을 대인관계 잘 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Kuhlen & Lee, 1943). 따라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된다. 한규석, 최송현, 정옥, 배재창의 연구(2004)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탐색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을 ‘된 사람’으로 인식하였고, 반대로 이기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유능성을 구성하는 한 축이 되며, 대학생들도 그 부분에 평상시 신경을 많이 쓰고 따라서 유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 ICQ 척도의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의 문항이 대부분 제외되고 3문항으로 구성된 ‘적절한 자기개방’ 영역이 새로운 요인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이다. 이 영역은 친구에게 자신의 부끄럽거나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는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점수가 5개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원 척도의 ‘개인적인 정보의 개방’이 막 알게 된 사람에게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거나 친구에게 자신을 무섭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등의 시기상조적이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자기개방을 나타냈다면, ‘적절한 자기개방’은 그보다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기개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은 거

침없는 자기개방 보다는 소극적인 자기개방을 대인관계 유능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생각함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유능감을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는 가족 중심적인 문화로 인하여 가족의 범위 밖의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이다(Fukuyama, 1995).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라는 범주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만을 안정적인 관계라고 믿고 결속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최상진, 2000;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2005). 반대로 ‘우리’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불신이 전제된다(최상진 등, 2005). 이런 배경으로 볼 때, 한국 문화에서는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에게 나의 개인적인 부분이나 나약한 부분을 개방하는 것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지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아울러, 자기 개방은 관계, 시기 및 내용 면에서 얼마나 적절한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를 접하게 되는 경우, 상담자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5가지 대인관계 유능성 영역을 토대로 내담자가 어떤 영역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담자는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기주장 및 표현하는 데에서나 갈등을 관리하는 데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나 타인을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고 어색하게 자기개방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문화 상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현재 겪고 있는 상

황이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알아보아 그 영역에 대한 유능성을 가늠해 본다면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역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서구 문화에서 개발된 ICQ 5개 영역의 문항만을 가지고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 한국문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중요한 영역을 모두 포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해석은 K-ICQ의 5개 하위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이 4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있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원 척도 문항의 일부가 제외된 결과 ‘적절한 개방’ 영역은 3문항만으로 구성되어 내적합치도 계수가 .70 이하로 나타났고 설명량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적절한 자기 개방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탐색적으로 조사하여 문항을 보강하고, 이외에도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인관계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K-ICQ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학력이나 지역에 따라 문화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설문 과정에서 한 대학교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도 한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설문에 참여한 사례수(182명)가 문항과 사례수 비율에서 볼 때 일반적인 제안 기준인 1:5(본 연구의 경우 200명)에 다소 못 미침으로써 안정적인 요인구조를 도출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Guadagnoli와 Velicer(1988)는 요인분석 결과에서 문항의 부하량(factor loading)이 높은(>.80) 문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라면 사례수가 대략 150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제안하였

으며, Comrey와 Lee(1992) 역시 요인분석에서 사례수가 100명이면 미흡하고 200명이면 양호하다고 제안한 바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수(182명)가 요인분석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미흡하다 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후속연구를 통해 최소 200명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추가적으로 타당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한국 대학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헌, 김지환 (1989). 한국판 UCLA고독척도. 학생생활연구 17: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7- 19.
- 김창대, 김수임 (2001). 대인관계능력개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학생연구 35(1):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83-95.
- 김화란 (2001). 부모의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우 (2003). 고등학생을 위한 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의 상담의 초점: ‘개인중심’ 대 ‘관계중심’. 한국문화와 상담, 제5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자료집, 23-45.
- 정재운 (2001).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 자녀 또래관계 개입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궁호 (2006). 이상적 인간형론의 동·서 비교.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기범, 강오순, 김지영 (2005). 한국문화에서의 대인관계 신뢰-불신의 기반과 심리적 기능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1-20.
- 최상진, 김의철, 김기범 (2003). 한국사회에서의 신뢰와 불신: 대인관계속에서의 신뢰와 불신을 기반으로서의 마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17.
- 한규석, 최송현, 정 욱, 배재창 (2004).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준거: 된 사람과 난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23-39.
- 홍기목 (2004).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berti, R. E., & Emmons, M. L. (1974). *Your perfect right: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2nd ed.). San Luis Obispo, CA: Impact.
- Allen, R. R., & Brown, K. L. (Eds.). (1976). *Developing communication competence in children*. Skokie, IL: National Textbook.
- Armistead, L., Forehand, R., Beach, S. R. H., & Brody, G. H. (1995). Predi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in young adulthood: The roles of family, self, and peer syste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4, 445-460.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M. (1997). Emotional reactivity toward parent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Differences across gender and type of relationship.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399-413.
- Battistich, V., Solomon, D., & Delucchi, K. (1993). Interaction processes and student outcomes in cooperative learning group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4, 19-32.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91-1008.
- Burns, G. L., & Farina, A. (1984). Social compete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99-113.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onger, A. J., Wallander, J. L., Ward, D. G., & Farrell, A. D. (1980). *Ratings of heterosexual anxiety and skill: 1+1=1*. Unpublished manuscript, Purdue University, Lafayette, IN, 47907.
- Comrey, A. L., & Lee, H. B. (1992).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oley, R. E., & Roach, D. A. (1984). A conceptual approach. In R. N. Bostrom (Ed.),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pp.11-32). Beverly Hills, CA: Sage.
- Dickinson, J., & Tokar, D. M. (2004). Structural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 239-254.
- Ernst, J. M., & Cacioppo, J. T. (1998). Lonely hear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onelines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8, 1-22.

- Fleming, J. S., & Courtney, B. E. (1984). The dimensiona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04-421.
- Fukuyama, F. (1995).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Gasteiger-Klicpera, B., & Klicpera, C. (1999).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with peer relationship problems. *Zeitschrift für Kinder- und Jugend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27, 93-102.
- Guadagnoli, E., & Velicer, W. F. (1988). Relation of sample size to the stability of component patterns. *Psychological Bulletin*, 103, 265-275.
- Hansson, R. O., Jones, W. H., & Carpenter, B. N. (1984). Relational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265-284.
- Hofstede, G. H.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London: McGraw-Hill.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07-316.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141-151.
- Keogh, E., & Herdenfeldt, M. (2002) Gender, coping and the perception of pain. *Pain*, 97, 195-201.
- Kim, U., Triandis, H. C., Kagitcibasi, C., Choi, S., & Yoon, G. (1994). Introduction.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CA: Sage Publications.
- Koesten, J. (2004).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sex of subjec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71, 226-244.
- Kuhlen, R. G., & Lee, B. J. (1943).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ocial acceptabil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4, 321-340.
- Larson, C. E., Backlund, P., Redmond, M., & Barbour, A. (1978). *Assessing functional communication*. Falls Church, VA: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62.
- Leary, M. R., & Downs, D. L. (1995). *Interpersonal functions of the self-esteem motive: The self-esteem system as a sociometer*. In M. R. Leary & D. L. Downs(Eds.),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123-144). New York: Plenum Press.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Lee, D-G. (2003). *A cluster analysis of procrastination and coping*.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Lorr, M., & More, W. W. (1980). Four dimensions of assertiveness. *Multivariate*

- Behavioral Research*, 15, 127-138.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ller, J. B., & de Winstanley, P. A. (2002). The role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memory for conver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78 - 89.
- Miller, J. M., & Bersoff, D. M. (1992). Culture and moral judgment: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541-554.
- Nelson, D. R., Hammen, C., Daley, S. E., Burge, D., & Davila, J. (2001). Sociotropic and autonomous personality styles: Contributions to chronic life 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61-76.
- O'Conno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ation, and Computers*, 32, 396-402.
- Paulhus, D. L. (1994).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Reference manual for BIDR version 6*. Unpublished manua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 Pett, M. A., Lackey, N. R., & Sullivan, J.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Potosky, D., & Bobko, P. (1997). Computer versus paper-and-pencil administration mode and response distortion in noncognitive selection tes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293-299.
- Riggio, R. E. (1986). Assessment of basic social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649-66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R. B. (1982). Assessing speaking and listening competence at the college level: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Assessment Instrument. *Communication Education*, 31, 19-32.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candell, D. J., & Wlazelek, B. (2002). A validation study of the AIDS Health Belief Scale.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1, 41-49.
- Silber, E., & Tippett, J. S. (1965). Self-esteem: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6, 1017-1071.
- Smith, R. E., & Christensen, D. S. (1995). Psychological skills as predictors of performance and survival in professional basebal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7, 399-415.
- Soldz, S., Budman, S., Demby, A., & Merry, J. (1995). A short form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Assessment*, 2, 53-63.
- Spitzberg, B. H., & Canary, D. J. (1985).

- Loneliness and relationally competent communic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384-402.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orton.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 & Row.
- Thorndike, R. L. (1920). Intelligence and its uses. *Harpers Monthly*, 140, 227-235.
- Triandis, H. C. (1989).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s*, 96, 269-289.
- Velicer, W. F., Eaton, C. A., & Fava, J. L. (2000). Construct explication through factor or component analysis: A review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or components In R. D. Goffin & E. Helmes (Eds.), *Problems and solutions in human assessment*. Norwell, MA: Kluwer Academic.
- Weissman, M. M., Paykel, E. S., Siegel, R., & Klerman, G. L. (1971). The social role performance of depressed women: Comparisons with a normal group.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390-405.
- Wierzbicki, M. (1984). Social skills deficits and subsequent depressed mood in stud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605-610.
- Zakahi, W. R., & Duran, R. L. (1982). All the lonely people: The relationship among loneliness,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anxiety. *Communication Quarterly*, 30, 203-209.
- Zigler, E., & Phillips, L. (1960). Social effectiveness and symptomatic behavior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 231-238.
- Zigler, E., & Phillips, L. (1961). Social competence and outcome in psychiatric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264-271.
- Zigler, E., & Phillips, L. (1962). Social competence and the process-reactive distinction in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5, 215-222.
- Zwick, W. R., & Velicer, W. F. (1982). Factors influencing four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7, 253-269.
- Zwick, W. R., &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3, 432-442.

원 고 접 수 일 : 2009. 08. 26

수정원고접수일 : 2009. 11. 21

계 재 결 정 일 : 2010. 01. 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Naree Han

Dong-gwi Le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undertaken with Korean college students validated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K-ICQ). The result of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uggested that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K-ICQ) has a 31 item-5 factor structure. Three factors(Initiation, Assertion, Conflict management) were similar as in the original ICQ, but two factors (Caring others, Appropriate disclosure) were newly named representing unique interpersonal cultures in Korea. Correlations with other criterion variables(i.e., interpersonal problems, loneliness, self-esteem, and social desirability) provided support for convergent,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stimates of the K-ICQ. A test-retest reliability estimate of the K-ICQ with a 2-week interval ($N = 30$) was established. This study shed light on key domains of Korea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fined the measure.

Key words : interpersonal competence, ICQ, K-ICQ, Korean culture